

(주)정도산업 기업사

2014년 11월, 전라북도 군산에서 양창진 대표는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뜻을 품고 (주)정도산업을 설립하였다. 그는 지역 물류와 유통, 건설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모델을 구상하였다. 설립 초기 자본금은 크지 않았지만, 정확성과 신뢰를 앞세운 정도산업의 행보는 빠르게 지역 사회에 자리 잡았다.

정도산업의 주력은 운송업이었다. 물류의 원활한 흐름이 기업과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화물 운송과 운송주선업에 뛰어 들었다. 전국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발전소 원료와 부원료, 산업단지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했고, 골재 유통과 무역업, 창고 보관 사업으로까지 활동을 넓혀갔다. 최근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진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물류·환경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창립 이후 회사는 거래처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납품까지 고객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 결과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단지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물류업의 특성상 경기 변동과 원자재 가격, 국제 무역 환경 변화는 때로는 큰 도전이 되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와 운송 단가 변동은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양창진 대표는 사업을 다각화하며 리스크를 분산하였다. 운송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무역, 창고, 폐기물 처리 등 연계 사업을 확장해 위기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고, 이러한 전략은 정도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 정도산업은 매출액 56억 원 이상,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하며 건실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본사는 군산 오식도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소규모 조직이지만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구조를 바탕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다양한 사업군을 아우르는 덕분에 지역 산업단지, 항만, 발전소 현장 등에서 정도산업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양창진 대표가 강조하는 기업 철학은 ‘정도(正道)의 경영’이다. 눈앞의 이익보다 신뢰를, 단기적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기업으로 남겠다는 신념이 기업명에도 담겨 있다. 직원들과의 상생,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세는 정도산업이 지역에서 신뢰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앞으로 정도산업은 기존 운송과 물류 중심의 사업을 넘어,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과 친환경 운송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물류 자동화와 디지털 관리 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은 ESG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 전략으로 확장될 것이다. 또한 국내 시장에 그치지 않고, 무역 분야의 경험을 살려 해외 시장과의 연계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정도산업은 이제 설립 10년을 넘어선 젊은 기업이지만, 그 성장 스토리에는 군산이라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 산업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를 쌓아온 양창진 대표의篤심이 깃들어 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정도산업이며, 내일을 향해 도약하는 정도산업의 모습이다.